

롯데쇼핑 (주)

백화점 사업부문

인권경영 정책

버전	1.0
최초 제정	2026.05

결 재	대표이사 정현석
	



1. 인권경영 이념

가. 롯데백화점은 Premium Lifestyle Curator라는 궁극적 지향점 아래, 인류 보편적 가치인 인권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인권경영을 적극 이행하는 동시에, 인권 침해 최소화 및 관련 활동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본 정책을 제정한다.

나. 롯데백화점은 UN 세계 인권 선언, UNGC 10대 원칙, 그리고 국내외 노동 및 인권 관련 표준과 가이드라인을 지지하고, 준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인권경영 방침

가. 롯데백화점은 모든 임직원들의 인권경영 감수성 향상을 위해 성희롱 예방, 장애인 인식 개선, 직장내 괴롭힘 방지 등 다양한 콘텐츠의 인권 교육을 실시한다.

나. 정기적 인권 실사 시, 실사 범위 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해나가, 인권 사각지대 없는 모든 임직원의 인권 향상을 최종 목표로 한다.

3. 인권경영 적용 범위

본 정책은 롯데백화점에 소속된 모든 임직원에게 적용되며, 롯데백화점의 가치 사슬과 연관된 고객, 협력사, 지역사회 등이 본 인권경영 정책을 함께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 지원한다.

4. 인권경영 조직 체계

대표이사는 인권경영의 최종 결정권자로, 인권경영 관련 이슈에 대해 보고를 받고, 주요 사안에 대한 의사결정에 참여한다. 인권 관련 정책 및 활동 이행 결과에 대해 점검하고, 필요한 사항을 보완, 관리하도록 독려한다. 이와 더불어, 이사회 산하 ESG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롯데쇼핑 ESG 위원회는 정기적으로 인권경영과 관련된 중장기 방향과 주요 추진 과제를 심의, 의결한다. 또한 사업운영 전반에서 나타나는 인권 리스크의 관리 현황을 확인하며 인권경영 전반에 대한 관리, 감독 기능을 수행한다. 인권경영 계획의 수립과 이행을 총괄하는 ESG 전담부서와 인권 이슈별 역할을 분담한 HR 혁신부문이 협업하여 실질적인 역할을 이행한다.

5. 인권경영 기본 원칙

1조. 강제노동 및 아동노동 금지

임직원 자유의사에 반하는 어떠한 형태의 근로도 용납하지 않으며, 사업을 영위하는 현지 국가에서 정한 최저 고용 연령 기준을 준수한다.

2조. 근로조건 준수

롯데백화점은 국가별 노동 관련 법규에서 명시한 최저임금, 초과 근로수당 지급, 보험 가입, 휴식/휴가 등을 준수하여 모든 임직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실질적으로 노력한다. 더불어, 모든 임직원의 역량 개발을 위한 충분

한 교육 기회 제공과 함께 사생활 존중과 개인정보 보호에도 힘쓴다.

3조. 산업안전 보장

롯데백화점은 모든 임직원에게 안전하고 청결한 근무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안전보건경영정책을 수립하고, 사업장 전반에 대한 안전진단 및 관리를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근로 중 발생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 리스크에 대한 선제적 예방 조치는 물론, 이미 발생한 사고나 질병에 대해서는 적절한 보상 등의 조치를 신속하게 제공한다.

4조. 차별금지

롯데백화점의 모든 임직원은 인종, 성별, 종교, 장애, 사회적 신분 등 일체의 불합리한 이유로 채용, 승진, 보상, 교육 등 인사 프로세스 상에서 차별적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여기에서 한발 더 나아가, 임직원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조직문화 조성의 적극적인 일원으로 활동한다.

5조.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결사의 자유와 단체 교섭의 권리를 인정하고, 회사와 모든 임직원 간의 자유로운 의사소통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노동조합 가입 및 결성 등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

6조.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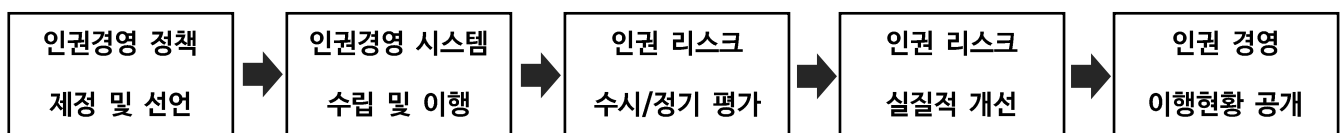
롯데백화점은 모든 협력사를 동등한 사업 파트너로 인식하고, 동반성장 할 수 있는 공정하고 투명한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한다. 특히 협력사를 대상으로 인권보호 준수를 적극 권장하며, 필요 시, 인권경영 이행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지원도 아끼지 않는다.

7조. 고객 및 지역사회 인권 보호

롯데백화점은 제품과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 시, 고객의 안전과 권익에 해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고객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최선의 조치를 취한다. 또한 모든 임직원은 지역사회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중요 의사 결정 시, 지역주민의 생명권 및 거주권을 항상 우선 고려한다.

6. 인권 리스크 관리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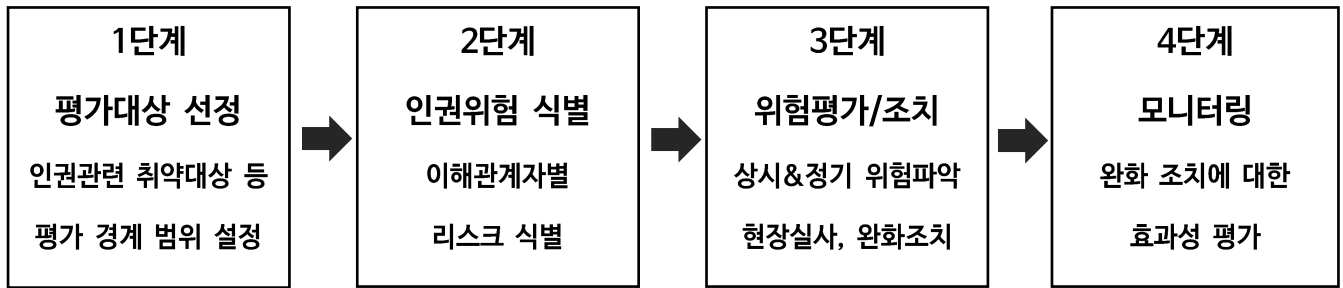
롯데백화점은 정기적으로 인권 리스크를 평가 및 개선하고, 그 결과를 모든 이해관계자들에게 공개한다.



7. 인권 위험 실사 프로세스

롯데백화점은 기업운영 전반에 걸쳐, 인권 관련 위험을 식별하고 완화하기 위한 조치를 시행하기 위해 정기적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한다. 인권 위험 실사 프로세스는 아래의 표와 같으며, 모니터링 이후 개선의 효과성 평가를 궁극적 완결점으로 인식한다. 인권영향평가는 년 1회 정기적으로, ESG 주관부서에서 유관부서와의 협업을 통해 실시한다. 실사범위는 본사에서 영업점 등으로 해마다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인권영향평가 지표 확정, 지표별

취약 이해관계자를 설정하여, 서면진단 및 현장실사의 순으로 진행된다.



8. 인권 고충 처리 채널 및 프로세스

롯데백화점에는 상시 고충처리 채널 운영과 정기적 임직원 설문이라는 시스템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으며, 누구나 쉽게 인권 침해 사례를 신고할 수 있다. 제보자 및 제보 내용에 대한 철저한 비밀 유지 뿐만 아니라 적절하고 신속한 사후처리를 통해 인권 고충 처리 채널의 실효성을 높인다.